

한국오키시스템즈, 컨슈머용 신제품 5종 출시

인쇄업무용 A3 컬러 프린터 등

한국오키시스템즈(대표 유동준)는 지난 1월 2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0년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보급형 컬러프린터 2종과 보급형 컬러복합기 1종 등 총5개 기종의 신제품을 발표했다.

한국오키시스템즈는 이번 신제품들로 인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 기존의 개인, SOHO시장을 비롯, 그래픽 및 인쇄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린팅업무에 적합한 전체적인 프린터 라인업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ED 프린터는 독자적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기존 제품보다 뛰어난 다단계 컬러 컨트롤 기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된 신제품 가운데 C830n은 A3출력이 가능하고 분당 출력속도가 기존의 제품인 C8000시리즈에 비해 향상되어 분당 30PPM의 고속, 초고화질 출력이 가능하다. PCL/PS대응으로 어떤 그래픽-인쇄공정도 소화해내며 A3프린터임에도 A4프린터 수준의 제품사이즈로 LED프린터의 장점인 콤팩트한 외형을 갖고 있다. 한국오키시스템즈는 C830n을 일반기업체 및 관공서의 Graphic, 도면출력용, POP출력용 뿐만 아니라 인쇄 및 디자인업체의 인쇄 Proofing용으로 동급 최강의 가격경쟁력, 품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다.

C930n은 지난 수년간 인쇄 및 Graphic시장의 전문가들에게 꾸준히 호평을 받아온 C9000시리즈의 상위모델로 Real 1200 dpi의 고화질을 실현할 수 있는 야심작이며 분당 36PPM의 빠른 속도와 A3+사이즈의 출력을 지원하는 특징점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오키시스템즈는 2010년 첫 신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전방위 마케팅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표회는 오키프린팅솔루션의 글로벌 CEO인 스키모토 하루시게 사장이 직접 참석, R&D 투자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제품 라인업 확충, 환경전략 강화 등 오키의 글로벌 사업전략을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한국오키시스템즈의 영업 및 마케팅 총괄 담당인 오태수 부장은 “오키는 기업, 공공시장과 일반 소비자시장 전체에 판매확대를 기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 오키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광고 및 홍보활동의 강화는 물론 기존 총판체제의 강화와 조달판매 직접 관리 등 본사체제의 영업 활동에 대폭 변화를 기할 것”이며 “세계시장에서 입증된 오키 제품 및 출력품질의 진면목을 국내에 적극 소개하면서 전방위 마케팅을 전개해 단기목표인 10% 시장점유율을 금년 중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